

■ 편집자의 글 ■

호모미그란스 22호는 ‘식민주의의 다양한 얼굴’ 과 ‘새로운 이주사를 위한 역사방법론과 개념 확장’이라는 두 가지의 특집을 기획하였다. 식민주의 논의는 프란츠 파농 이후 아직도 학계의 뜨거운 논쟁 주제이고 공간을 넘나드는 인간의 이주현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서인도 제도에서 통킹만까지, 카리브해의 흑인에서 뉴질랜드의 백인 이주자까지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의 관계를 다룬다. 우선 하영준은 흑인 급진주의자 C. L. R 제임스의 크리켓과 카니발에 관련된 저작들을 중심으로 식민지의 대중문화가 영국령 서인도제도 사회의 식민화와 탈식민화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주요 매개체라 주장한다. 즉, 크리켓과 카니발의 서인도적 점유가 문화적 실천으로써 지배 권력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인종적, 문화적 이질성을 가진 서인도 연방의 창출과 열린 국민정체성 창출에 이바지하는 기능도 동시에 실현한다는 것이다. 정재현은 19세기 통킹만 해적을 접경의 초민족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베트남 주권 강탈 이후 프랑스 국가권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 권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해적들에 비해 높은 군사력을 보유한 프랑스군도 현지 환경, 지역주민과 밀착한 해적들을 단순히 힘으로만 제압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통킹만 해적들은 이런 점을 십분 이용하여 식민 권력에 직접적으로 도전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인구구성 변화에 주목한 권형진은 뉴질랜드를 영국제국의 식민주의의 전형으로 상정한다. 특히 20세기 전환기에 실시되었던 뉴질랜드의 이민지원 정책으로 말미암아 영국인의 대량 유입이 가능해졌고 이것이 인구구성면에 있어서 가장 영국적인 식민사치령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의 특집 주제는 인공지능시대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이주사 연구

를 위한 실험적 방법론의 확장에 주목했다. 이미 이주자의 심리연구나 세대연구 등에 통계학은 물론이고 빅데이터 방법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구 현실 속에서 호모미그란스는 과거를 모델링하는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활용하는 계산역사학을 새로운 이주사 연구방법의 하나의 가능성으로 소개한다. 양재혁은 과거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시뮬레이션 모델링이 역사가의 뇌가 아닌 컴퓨터 안에서 계산능력을 이용하여 가상의 세계를 구축하고 실행함으로써 과거에 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동과 박충식은 한국 디지털 역사학의 현주소를 검토하면서 디지털 역사학이라는 것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한으로서 계산역사학을 소개한다. 즉, 행위자 기반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변수들을 상정하고 연구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진다는 주장이다. 계산역사학이라는 새로운 방법론 시도와는 결을 달리하는 홍상현은 디지털-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사이버 공간을 유목하는 새로운 현대의 현대적 노마드라 정의하며 ‘이주’의 개념적 확장을 제시한다. 홍상현은 문자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영상기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중심을 이동한 디지털 노마드 환경의 특징으로 ‘실상적으로 기능하는 허상’, ‘무한복제의 가능성’, ‘원본개념의 상실’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노마드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콘텐츠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는 한계도 함께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한다. 전통적인 이주 현상이 문화의 전파와 충돌을 수반하며 사회구조의 변화를 만들었다면, 디지털 노마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지고 온 현대사회의 새로운 유목생활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정주와 이주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그 외에도 박선영은 한국으로 이주해 온 파키스탄 남성 노동자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이주노동자와 선주민 사이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유형화하며 양자의 입장에서 내적 갈등을 사실적으로 고찰한다. 신영현과 강지현은 김려영이 쓴 소설 『완득이』와 이를 영화화한 이한 감독의 <완득이>를 이주 성장서사 관점에서 살펴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타자에 대한 무의식적인 차별과 편견을 폭로한다. 최강화와 오병섭은 이주에 대한 기존

의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이주가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전체구조를 조망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고 기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구체적 사례의 하나로 하경수는 초등학교 현대사 수업을 통해 한국의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문화 시민사회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새로운 역사교육의 방향을 탐색한다.